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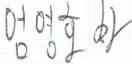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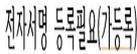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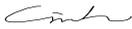
2025년도 제2회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 심의안건

연번	안건명	의결사항	수정사항
1	2024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회계결산	원안의결	

2025. 04. 24.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문규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선중		위원	엄영호	
위원	이용희		위원	이재호	
위원	이종환		위원	임은희	
위원	제세영		위원	조미숙	
위원	표민찬		위원	홍수민	

2025년 제2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일시	2025년 4월 24일(목요일), 15:00 ~
회의장소	대학본부 7층 소회의실
참석위원 (10명)	산학협력단장(이문규), 교무처장(이용희), 기획처장(이종환), 행정처장(조미숙), 산학협력부단장(엄영호), 표민찬, 김선중, 홍수민, 임은희, 이재호
불참위원 (2명)	김대진, 제세영

□ 회의 심의안건

- 2024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회계 결산(안)

□ 회의내용

■산학협력단장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제2회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3페이지 심의 안건 부분입니다. 위의 관련 규정 세 가지에 근거하여 오늘 회계 결산을 하는 회의고요. 검사결과를 보시면 적정의건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 회계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로 회계기간은 1년, 그리고 감사는 외부 회계법인인 태일회계법인에서, 내부감사는 정주령 교수님께서 감사해서 이렇게 회계 의견을 감사 의견을 주셨고요.

전체 수입을 보면 23년도에서 넘어온 전년도 이월금이 39,440,836천원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2024년 우리 산단 수입이 71,026,242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110,467,078천원이 올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내역은 뒤에 이제 또 세부적인 내용들은 있고요. 지출 총계를 보면 24년에서 25년 올해로 넘긴 차년도 이월금이 42,749,783천원이고, 그 다음에 2024년에 지출 내역이 67,717,295천원입니다. 이상이고요. 총괄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우리 학교기업 관련된 부분 기타 수입 지출에 관련돼서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기업 부분은 김선형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더고구마 김선형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학교기업 더 고구마 담당하고 있는 환경원예학과 김선형 교수입니다. 저희 박설애선생님께서 지출 내역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총장님께서 궁금하시는 학교 기업 발전 방향이라든지 수익 및 지출 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고구마 박설애

안녕하세요. 학교기업 더고구마입니다. 교수님 대신해서 제가 운영성과부터 재무 선택까지 이 수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 응답은 교수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운영 성과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99,665천원, 매출원가 15,191천원 해서 매출 총이익이 84,474천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일반제경비 다 포함하여 154,064천원, 영업손실은 69,590천원, 영업외수익은 66,056천원, 영업외비용은 9,150천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12,685천원이라고 교수님 주요 증감 사항 부분은요. 저희가 신규 상품 개발했고 조직 판매, 조직 배양을 판매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재고 상품 판매 및 재고 상품 유통 기한이 다해서 정리에 따른 원가가 감소하여서 매출 원가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경기 부분에서 저희가 상품을 유통할 때 공통 표준 코드를 사용하는데 그 회원 자격이 3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그게 24년도에 갱신하는 날이어서 일반 재경위 부분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은 손실 감소로 영업외비용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재무 상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이 228,508천원, 재고자산은 31,922천원해서 유동자산은 260,430천원. 그리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하여 자산 총계가 260,436천원. 유동부채는 2,170천원, 비유동부채는 55,446천원, 부채총계가 57,616천원이며 출연기본금 793,794천원이고 전기이월운영차익은 578,288천원, 당기운영차익은 12,685천원, 기본금총계는 202,821천원, 부채와기본금총계는 260,436천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더고구마 김선형교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한 2024년도 초에 한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고구마 자산이 다 없어져가지고는(학교기업더고구마 보유하고 있던 묘의 소실) 학교공사(자연과학관 석면공사) 등으로 해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말랭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묘에 집중을 하자 그러가지고 지금 현재 전국에 나가는 육묘장에 나가는 묘들이 최종적으로 한 1억원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고 저희가 육묘장만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육묘장만 갖고 있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는데 육묘를 공급하다 보니까 한 1억원 정도 나가고 있고 상당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매출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이제 장미하고 수초까지 제품을 새로 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집중을 해가지고 올해 매출은 한 2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올해 이제 3단계 학교기업 교육부 지원 사업이 끝났는데 4월달에 다시 이제 4단계 학교 기업 지원 사업이 5년짜리로 저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부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교육부 지원 사업이 한 2억 2천 정도 이제 매년 지원이 나오는데 거기 중에 한 1억 원 정도가 거의 학생들 장학금으로 다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원에학과가 사실상 교과 과목 장학금 수혜율이 가장 높게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기업 자체가 기업 운영도 목적이 있겠지만 학생들의 어떤 현장 실습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지금 4단계 학교 기업 사업을 지원해서 저희가 4단계에 진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문 사항이 라든지 매출 현황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장

교수님 올해 이제 교육부 사업이 정리돼서 새로 이제 신청하고 또 선정이 되셔야 되는데 그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더고구마 김선형교수

올해 사업이 지금 제가 듣기에는 농업 분야는 따로 하고 분야별로 다 나눕니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전국에서 농업 분야가 지금 학교기업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가지고 이번에 3단계에서 조금 제가 망설였는데 KIAT 쪽에서 농업 분야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하고 전남과학대학이 들어갔는데 전문대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도 저희가 훨씬 더 우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2:1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남과학대는 농업 분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화장품 쪽으로 들어온다고 또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 분야는 저희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자신 있습니다. 4단계 사업

■산학협력단장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학교 대표 기업 더 고구마에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표민찬 교수

사실 이렇게 적자가 나면 민간 기업 같으면 솔직히 망해야하는 기업이죠.

■산학협력단장

그런데 적자 폭이 12기하고 지금 13기 보면 적자 폭이 한 5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게 트렌드로 계속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더고구마 김선형교수

예. 저희가 보호가 상당히 인식이 좋아가지고요. 계속 달라고 하는 육묘장들이 자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저희가 바이러스 제거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매출이 지금 현재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적자 폭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게 교육부 사업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거의 한 60%가 학생들 장학금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학교기업을 하는 측에서도 각 대학에서도 지금 가장 불만이 뭐냐면 이 기업을 빼달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업을 늘린 상태에서 가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 와중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원에학과 학생들이 거의 1년에 한 현장 실습비로 한 180만 원씩 150만 원씩 거의 30명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절학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올 여름에는 계절 학기를 운영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지역 상황에서 학생들의 어떤 현장 실습 그 다음에 대학원 진학 물론 지원금을 주도록 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으로 보지 마시고 학생들 현장 실습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기업으로 인해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학과에 비해서 그런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기업에 대해서 저기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면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민찬 교수

이거 바이러스 제거기술은 특허가 있는거예요?

■더고구마 김선형교수

네 저희가 그 고구마 품종 판별 마크하고 바이러스 진단 키트는 특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지금 올해 우즈베키스탄 딸기 바이러스 진단 키트도 특허를 낼 예정입니다.그래서 딸기 바이러스 그다음에 장미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다 특허를 갖고 있고요.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쌀 드시면 고시까지 이런 거 이게 품종 판별 마크라고 얘기하거든요.바이러스 진단 기술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바이러스 진단 기술에 대한 고구마 특허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우스갯 소리로 코로나를 했어야 되는데 돈도 안 되는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해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에 감사합니다.

■산학협력단장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학교기업 시공간분석연구소 운영 성과를 좀 보고

■시공간분석연구소 윤진성

안녕하세요. 본부장이신 이승일교수님께서 지금 외부 회의가 딱 시간이 겹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일단 저희 시공간분석연구소 운영 성과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기에 비해서 이제 당기 2024년도에는 저희가 매출이 없는 상태고요. 감가상각비 18,992천원, 일반제경비 1,164천원 해서 저희 판매비와 관리비가 20,156천원, 영업손실 20,156천원 됩니다. 영업외비용은 현장실습비가 사용되었고요. 당기순이익(손실)같은 경우는 24,350천원 정도 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과학적 사업 미선정에 따라 감소하고요. 이거에 따른 이제 사업 미선정 그리고 매입 감소에 따른 감소입니다. 영업외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계현장실습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재무상태로는 이제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1,168천원 갖고 있는 상태고요. 비유동자산은 24,835천원, 그리고 자산총계는 26,003천원, 부채총계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산업협력단 출연금으로 125,068천원입니다. 저희 기본금총계는 25,633천원, 부채와기본금총계는 26,003천원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학교 기업으로서 이제 매출을 좀 올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기업을 설립할 때 도시 데이터하고 공간 데이터 구축하는 사업만 진행하겠다 라는 형식으로 이게 사업이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만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용역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어 만약에 플러스 돼서 나오는 것들을 하려고 하니 이게 설립 때부터 이게 데이터 구축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또 다른 건 못한다 라는 제약이 걸려서요. 그래서 앞으로의 출구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승일교수님께서 현재 자회사를 설 설립을 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걸 이제 연구소 기업까지 설립을 하게 되면은 거기 그 회사를 통해서 오는 그 사업들을 가지고 다시 시공간분석연구소로 다시 일거리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나온 매출액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현장 실습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장

혹시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용희 교무처장

제가 처음 와서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사업 등록 데이터 구축밖에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시공간분석연구소 윤진성

네. 처음에 설립할 때 저희는 이제 우선 이제 매출을 올리려면 뭔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이제 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이 데이터 구축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희 교무처장

되어있다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시공간분석연구소 윤진성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 정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서 다른 걸 입력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해서 못한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일교수님한테 들어온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시공간분석연구소사업으로 하려다가 못해서 그냥 산학협력단으로 계약을 한 것도 몇 번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장

일반 회사에서는 주주총회 열어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업종 업체 이런 거를 추가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말이죠

■시공간분석연구소 윤진성

처음 설립 때부터 그런 조건에서 그렇다고 저는 늦게 전달 들어서요.

■산학협력단장

학교기업은 정관변경이 안되나요?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팀장 양수정

이렇게 학교기업의 특징이 개별 기업이라 이름은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 기업이라는 게

별도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산학협력단 내에 한 부서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산학협력단 명의로밖에 용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제한 때문에 원래 계획은 시공간분석연구소 이름으로 영역을 계약을 하려고 했던 걸 못하시고 산학협력단으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매출이 그래서 그걸 주 목적으로 하실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원활하게 좀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시공간분석연구소 윤진성

그래서 이제 현재 이승일교수님께서 세우신 미래도시 솔루션 연구소도 이제 저희가 뭔가 연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수주를 받거나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 구축 관련된 거를 다 이 시공간 분석 연구소로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연구소의 매출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민찬 교수

그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자회사에서 수주해 오면 시공간 연구소랑 다시 매출을 주고받는 거네. 계약을 해서 다시 넘어온다는 얘기겠네요.

■시공간분석연구소 윤진성

왜냐하면 이제 그게 원래 현재까지는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일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학교 소속이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올해 8월에 이제 퇴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 소속은 아니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에다가 줄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이 좀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수민

그럼 지난 8년간 한 번도 영업 수익을 만드신 적이 없는 건가요?

■시공간분석연구소 윤진성

아니요. 영업 수익은 있었습디다. 저희도 더고구마처럼 4단계 학교기업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2년 하고서 탈락이 됐는데 그 탈락된 이유가 저희 이제 학부생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하긴 했는데 거기서 평가 결과가 이제 이거는 학부생이 아니라 대학원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산업이다 라는 이유로 저희가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못 했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바꾸쳐 사업이라는 걸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바꾸쳐 사업도 보니까 뭔가 좀 더 까다로웠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지인이라든지 다른 데 도움을 받아서 그 쪽에서 이제 데이터 구축할 게 있으면은 저희가 수주해서 갖고 오고 그걸 이제 현장 실습에다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원이 저희 단장님 한 분이셔서 저희는 이제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나가는 게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래 도시 솔루션연구소에서 시공간분석연구소에 데이터 구축 사업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제가 또 미래 도시 솔루션연구소 소속이긴 하지만 시공간분석연구소도 같이 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차피 제가 또 구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건비에서 이제 지출되는 건 없고요. 순수히 이제 그 비용들이 다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희 교무처장

제가 듣기로는 데이터 구축 사업이 한 향후 한 10년간 데이터 여러 가지 NIS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시공간분석연구소 윤진성

네 이제는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용희 교무처장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자회사로 이제 해소를 바꿔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아예 모르겠습니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안 되신 데가 있으니까 그 업종 업체를 좀 바꾸셔서 그렇죠. 자회사에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고려해주세요.

■산학협력단장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우면 없애고 새로 만드는건 안되는 거예요? 폐업도 쉽지는 않은거예요?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팀장 양수정

학교 기업이 과거에 폐업을 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교수님이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학생들을 했었는데 그때도 교수님이 퇴직하시면서 폐업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폐업 정리하려면 학칙 개정이나 이런 절차들이 사실 있긴 있어야 되고요. 사전예고하고 학칙개정하고 폐업 신고하고 이런 행정 절차만 진행되기 하면 됩니다. 한 조직을 폐지하는 절차를 밟는 거랑 동일합니다.

■시공간분석연구소 윤진성

이게 이승일교수님께서도 이제 없애는 방법을 생각은 안 하고 계시고요. 왜냐면 보통 이제 교수님이 퇴임하시면 다른 분이 이제 저희 본부장을 하실 텐데 교수님이 이 학교로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이제 이걸로 인해서 학생들에 대한 협력 실습 수요가 좀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매출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또 이제 학생들을 선발해서 받는 경우가 큼니다. 근데 그 선발하지 않고 못 했을 경우에는 지원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제 학생들한테 뭔가 돌려주시면 이게 좀 크셔갖고 좀 유지를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민찬 교수

감가상각비가 18,992천원 했잖아요. 앞으로 보면 2년 감가상각 앞으로 자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앞으로 1년 지나면 회사가 없는 거 자산이 없는 거잖아요.

■시공간분석연구소 윤진성

거의 1~2년 안에는 저희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 매출을 늘려가 늘릴 계획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당장 올해 현장 실습을 받을 수 있나요?

■시공간분석연구소 윤진성

당장은 힘들고 왜냐하면 올해하게 되면은 동계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구소 기업이 이제 선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R&D 사업을 이제 맡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같 생각입니다.

■이용희 교무처장

데이터 구축하는 데 현장실습은 어떤걸 하나요?

■시공간분석연구소 윤진성

보통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GIS활용부터 데이터 구축, 어디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지 부터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육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툴킷프로그램을 좀 만드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만들고 나서 그걸 이제 다시 학생들의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민찬 교수

감가상각비가 왜 이렇게 크죠? 유동자산이 뭐길래 감가상각비가 거의 1900만원이 나오죠?

■시공간분석연구소 윤진성

대부분 장비로 잡습니다.

■표민찬 교수

근데 감가상각을 장비로 이렇게 많이 잡아요?

■시공간분석연구소 윤진성

제가 회계쪽은 잘 모르겠어서요. 세무사에서 주시는거 그대로 제출하다보니까.

■표민찬 교수

1년 더 감가상각하면 이제 자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기기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시공간분석연구소 윤진성

대부분 구입한지 5~6년 정도 되었습니다.

■표민찬 교수

그럼 기기가 5~6년 정도 되면 그 기기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산학협력단 재무회계 파트장 이정호

기계가 하나가 아니고요. 이제 개수가 좀 있고 그게 내부 연한에 맞춰서 저희가 감가상각을 하는데 이제 기계가 하나면 별로 안 되는 거는데 이제 여러 개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조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단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단 수입 현황 관련해서 들었습니다.

■산학협력부단장

산학협력단 수입 현황 중 조금 더 중요한 파트만 한 번 말씀드릴 겁니다. 보시면 다 아시다시피 여기 수익이 잡힌 거고 이제 나중에 지출 부분 있고요. 산학협력수익은 주로 용역이나 계약학과 같은 걸로 들어오는 수익이며, 보시는 것처럼 살짝 줄어든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보면 계약 학과는 5억 원이 늘었지만 정부 용역이나 인용 용역이 좀 감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금수익이 54억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연구개발R&D사업이 약 17억 증가했고, 조기취업형계약학과 및 특성화 대학 이 쪽이 증가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R&D사업이 많이 늘었는지 여쭙보니 이게 실제로 증가한건 아니고 이게 다년 차 과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들어온거라서 실제로 24년에는 약간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기 과제들이나 이런 게 실제 입증된 게 있어서 이제 숫자상으로는 이제 그렇다라고 되겠고요. 근데 이제 계약학과나 대학원을 보내는 게 맞고 이제 R&D 사업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접비 수익은 이제 줄었는데 오픈 이유는 이제 간접비 고시율이 저희가 약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때문에 줄었고 그리고 약간 고정 간접비가 좀 작은 그러니까 과제 규모가 작으면 이제 되게 작게 들어오는 간접비 과제가 있는데 그런 게 좀 주로 최근 수주를 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활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장기로 드는 예금이 있는데 이제 이자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그거를 해지하고 새로 재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시면 그냥 이게 자세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금액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더 팀장님 제가 조금 더 위원님들 아셔야 될 거 있는데 빠뜨린 게 있을까요? 좀 더 하고 넘어갈까요? 여기서 논의를 좀 할까요?

■산학협력단장

그러면 수익 부분에서 혹시 특이사항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23년에서 24년에 수익이 마치 108,596천원에서 110,467천원으로 늘어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까 그 장기 과제 그 부분에서 영향을 준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동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팀장 양수정

실제로는 R&D가 좀 줄었는데 이 수입 현황은 계약 기준이 아니라 입금 기준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계약 기준으로는 좀 줄었고, 입금 기준으로는 5월 장기 과제가 23 회계년도에 좀 들어온 건 영향 때문에 좀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문유

그럼 그게 25년도에 영향을 주는건가요?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팀장 양수정

25년도에 계약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R&D 상황에 따라서 또 올해 역량이 어

떻게 될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그래서 8p 운영성과 현황 보시면 운영 수익 기준으로는 다른 수입 감소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입 현황은 입금 기준이고, 운영 평가 기준은 계약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 지출현황으로 넘어가실까요?

■산학협력부단장

지출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현황은 크게 이제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이렇게 큰 건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산학협력지출은 이제 용역 수주를 감소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R&D도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이제 지원금 직접비 지출이 조금 감소했고, 간접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억 증가를 했는데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간접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따실 수 있게 좀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내 연구 보상비등 이런 것들이 들어서 이제 지출이 증가했고 그리고 학계 회계 전출금은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거는 가끔 현장에서 이제 다시 보내드리는데 이제 학교 시설 인프라 지원 증가 올해도 2억이 늘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술 지주회사 쪽에 출자금 창업 기업 학교 창업 기업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출자금이 2억이 좀 늘어서 지출이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단장

지출 관련해서 궁금하신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조미숙 행정처장

대학 회계로 전출하는 이 금액은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출금의 규모가 정해져있나요?

■산학협력부단장

상황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조미숙 행정처장

대학회계 규모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굉장히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유가 생겨서 여유가 생기면 많이 ~~

■산학협력단장

대학회계로 전출된 내역은 어떤어떤 부분이 있나요?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팀장 양수정

사실 그때그때 다른데요. 이번에 24회계년도에 전출된 금액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간 본부 리모델링 8층 식당 이동하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대부분

■조미숙 행정처장

그걸 용도를 정해서 대학회계로 보내주는 건가요?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팀장 양수정

아니요.

■조미숙 행정처장

금액으로 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편성해서 쓴다는 건가요?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팀장 양수정

네. 그걸 가지고 편성해서 쓰고 근데 마지막에 회계 결과 보고서 할 때 어떻게 썼는지는 저희도 받아서 교육부에 보고를 해야 돼서 하고 있습니다.

■조미숙 행정처장

대략적으로 매년 2억 정도 규모로 전출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산학협력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좀 많은 편이었고요.

■산학협력부단장

2023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산학협력단 재무회계 파트장 이정호

올해 회계연도에는 용도가 정해져서 요청이 왔었어 가지고요. 2억5천만원에 대한 용도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어서. 이번에는 2억5천만원을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용도를 신청을 했습니다.2억 5천 중에 리모델링 비용이 2억 4천 정도였고요.그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보직 경비가 일부 나가는 게 있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2억 5천 정도 해서 총 금액이 전출됐습니다.

■산학협력단장

지출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이나 궁금하신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8p로 넘어가실게요. 산학협력단 운영성과(수익 및 비용) 현황인데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 거의 반복 아닌가 싶은데 조금 브레이크 나눠서 지금 그다음 페이지 재산상태 현황 관련된 특이 사항이 있나요? 특이사항이 없으시면 이 회의자료는 끝났고, 나눠드린 산학협력단 내부감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받으신 내부 감사 보고서 첫 페이지는 잘 됐다. 특히 특이사항 없다는 얘기로 보이고요.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2024년 회계년도 개선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하시는 분은 2년 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4년 회계가 1.4억 구간의 손실이 생겼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에는 사실 손실이 잘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생기는 게 약간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운용하는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몰랐지만 산단에서 한나라는 게, 저도 잘 몰랐지만 사실은 우리가 급하게 쓰거나 중요하게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요청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이렇게 마음같아서는 다 해주고 싶지만 그게 좀 현실적으로는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비 수익이 전년도 대비 한 8%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R&D 수주 감소가 있습니다. 갈수록 대형과제도 개별 과제보다는 큰 대형 과제 위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연구 시스템이나 RND 수주를 좀 하기 위해서는 좀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는 같이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정처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아올러 학교 회계로 2.5억 반출 또한 손실 부분인데 물론 학교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돈이 나간다면 이런 차원은 아닌데 투자 같은 개념에서 보면 좋은 데 잘 쓰면 사실 되는 거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기업에 대한 검토 의견들이 있는데 쪽 읽어봐 주시고요. 더 고구마 기업인 경우에 추가 출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추가 출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팀장 양수정

학교기업 정부지원 사업을 받게 되면 필수적으로 학교 대응 자금을 30%를 매칭을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산학협력단장

근데 매칭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수주를 해오게 되면 또 이게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팀장 양수정

네 제가 필수 대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산학협력단장

우리한테는 추가 출자를 하고 갔다 오는 게 훨씬 나은 거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분석연구소 관련된 얘기는 여기(산학협력단 내부감사보고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팀장 양수정

시공간 분석 연구소는 정부 지원 사업이 없어서 출자하는 부분이 없어서 언급은 안 하신긴 했는데 학교 대학에 대해서 지금 출구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학협력단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3번 기술 위주 회사 출자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기술 투자 회사에서 단기 4억 원을 출자해서 총 15억 원을 출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바로 지금 이 회의 전에 제가 기술 지주에서 관련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이게 참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학교에서 만들어낸 기술 자회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무

것도 수익으로 가지 않고 아주 회사 말하면 아주 초기에 이렇게 시작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작게 많이 출자를 해서 그중에 크게 성공한 회사를 골라내는 전략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게 회사 잣대로 보면은 출자할 만한 회사가 없을 거예요.

진짜 내가 딱 한 두 회사만 우리나라 어떤 회사든 상관없이 출자하겠다고 하면 아마 이런 데 출자를 아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가능성을 보고 아주 소액이지만 많이 풀리고 또 그게 학교에 또 요즘에 이제 요구하는 창업이라든지 관련된 여러가지 실적들이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이시긴 하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이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기는 어려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단계 자금의 효율적 운영 보시면, 지금 보유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시 팀장님 운영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 있으세요? 안전하면 서도 수익이 높은 방법이요.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팀장 양수정

뾰족한 방법은 없고, 작년에는 이자율이 좀 높아서 기존에 장기 예금으로 가입했던 2.2%대의 장기 예금을 해지하고 이율이 높은 단기 상품을 가입을 해서 그리고 여유 자금을 계속 거의 매월 파악해 가지고 저회 담당 선생님께서 매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마다 정기 예금을 가입을 했다가 저회 마감되면 해지하고 다시 또 파악해서 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든지 또 파악해서 다시 또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이자 수익을 좀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이자 수익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밖에 리스크가 없으면서 안전한 자산을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미숙 행정처장

사실 이 부분은 대학 회계도 비슷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재무과하고 같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서로 좋은 방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팀장 양수정

네 알겠습니다.

■표민찬 교수

미국 학교들은 주식도 투자 하거든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아예 펀드를 하거든요.

■산학협력단장

이게 100% 말고 우리 한 30%나 20%나 조금 더 그 정도 부분에서는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약간 공격적인 투자 그런 건 안되나요?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팀장 양수정

너무 하고 싶는데 그게 예전에 그렇게 했다가 손실을 봐서 결국에는 감사지적이 돼가지고 부서의 책임소재가 되더라고요. 왜 어떤 의사결정으로 이런 상품에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

도 문제가 돼서 일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일단 안 되는 것으로 전제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장

모든 학교가 다 그런가요?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팀장 양수정

네 대부분 산단들이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장

KAIST의 경우에 들은 얘기인데 자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팔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팔지를 못하는 이유가 판 다음에 오르면 배임이 된대요. 그래서 팔지를 못하고 결국은 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유자재로 팔거나 하거나 할 수가 없다고 그 판단에 대해서 잘하면 본전이지만 잘못하면 감사 지적 당하고 배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우리가 그 래도 운영하는 돈이 꽤 있기 때문에 한 10%만이라도 조금 더 공격적인 걸 하면 낫지 않을 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표민찬 교수

정기 예금만 하는건가요? 채권같은건 하지 않는건가요?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팀장 양수정

네 지금은 다 정기예금으로만 합니다.

■표민찬 교수

안전하게 국제같은것도 사도 되니까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팀장 양수정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장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감사 의견 함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교기업 운영현황이 있는 데요. 더 고구마가 24년에 43명 현장실습에 현장 실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23년에는 29명에서 29명 24년에는 41명 14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간분석연구소는 23년에는 35명을 인턴십을 했는데 24년은 아까 보시다시피 정부과제 수주가 안 돼서 이게 현장 실습은 기업에 돈을 쥐야 되거든요. 최저 시급에 해당되는 그런 쥐야 되기 때문에 24년에는 6명밖에 못했고, 아마 25년도 아까 말씀해 주신거 보니까 동계 정도의 사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고구마는 이제 10억 정부 KIAT에서 하고 있는 정부 지원금 10억짜리 사업을 올해 2월 28일까지 수행을 했고 새로운 사업을 신규 신청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회의를 모두 승인해주시면 총장님 승인받고 교육부에 제출합니다. 전체 다 승인해주시겠습니까?

■참석자 모두

네. 승인합니다.

■산학협력단장

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